

 <b>기획재정부</b>		<h1>보도자료</h1>	
<b>보도일시</b>	2020. 2. 17(월) 16:00	<b>배포일시</b>	2020. 2. 14(금) 08:00
<b>담당과장</b>	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 이형철 (044-215-2510)	<b>담당자</b>	이찬호 사무관(044-215-2512)
	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이주섭 (044-215-4510)		김형욱 사무관(044-215-4512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김성열 (044-203-4210)		김상우 서기관(044-203-4211)
	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김대희 (042-481-4537)		양승욱 서기관(042-481-4543)
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손주형 (02-2100-2830)		박진애 서기관(02-2100-2831)

## **확실한 변화, 대한민국 2020** **‘도약하는 경제, 새로운 미래’ 혁신성장을 주제로,** **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**

-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·중소벤처기업부·금융위원회 -

### 《 부처별 주요보고내용 》

- ◇ (기획재정부) 혁신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의 개선을 위해  
 ① 20년에는 혁신성장 ‘4+1 전략 틀’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, ② 혁신성장의 선도, 이견 조율, 획기적 지원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
- ◇ (산업통상자원부)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“확실한 자립”을 강력히 추진하고,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 박차, ② 신산업을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“포스트 반도체”로 육성, ③ “글로벌 수소 경제 1등 국가”로 도약, ④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추진
- ◇ (중소벤처기업부) ①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공장, 스마트서비스, 스마트상점·공방 등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, ② K-유니콘프로젝트, 브랜드 K,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중추인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, ③ 대중소기업간 상생 확산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디지털경제의 밑거름인 상생과 공존 확산
- ◇ (금융위원회) ① 기술력·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·벤처기업으로의 자금흐름 전환, ② 금융규제의 과감한 쇄신과 신기술·금융의 융·복합 촉진 ③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안전망 조성 추진

## 【 2020 정부업무보고 개요 】

- 기획재정부(부총리 홍남기),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,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, 금융위원회(위원장 은성수) 등 4개 부처는 2.17일(월) 청와대 영빈관에서 '도약하는 경제, 새로운 미래'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「정부업무보고」를 실시
  -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·차관, 당·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, 산업부장관, 중기부장관,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
  - 이어서 소부장, 제조업, 벤처창업,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민간 기업대표,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
-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·소비·투자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,
  -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, 부품,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듯이,
  -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,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,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이 특징
-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

## 【 기획재정부 】

- 기획재정부는 「혁신성장, '확실한 변화'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」를 보고·발표
-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“혁신성장·포용성장·공정경제”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

○ 그간,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·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고,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

- \* (제2벤처 붐) 신규 벤처투자 4.3조원, 유니콘기업 수 세계 6위(11개)
- (제조·서비스혁신) 스마트공장 1.2만개, 스마트산단 2개소, 콘텐츠 수출액 10조원
- (미래먹거리) 5G 세계최초 상용화,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, 바이오 기술수출 8조원(18년)
- (혁신인재) 고급 실무인재 4.5만명, AI 대학원 5개소, '42서울' 개원
- (규제혁신) 규제샌드박스 사례 195건,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377건

□ '20년 혁신성장은 '4+1 전략 틀\*'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

\* ①기존산업시장, ②신산업신시장, ③혁신기술R&D혁신, ④혁신인재·혁신금융 + ⑤제도·인프라

① (기존산업·시장) 주력산업의 스마트화,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'안주하지 않는 혁신'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

- \* (주력산업) 스마트공장(3만개, '22년)·스마트산단(10개, '22년) 확대, 제조데이터 센터·플랫폼 구축,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
- \* (서비스산업) 서비스산업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(숙박공유·산림휴양관광 등), 3K(K팝/K푸드/K뷰티)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, K뷰티 혁신전략 수립 등

② (신산업·신시장) 공격적·선도적 투자로 Post-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강화

- \* (신산업)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(3월),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, 전기차 보급 확대('19. 9만대 → '22. 43만대, 누적)
- \* (벤처창업) 유니콘 20개 목표(~'22) 조기달성 노력, 스케일업펀드 3.2조원 신규 조성

③ (혁신기술·R&D) 세계를 선도하는 'World First'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&D 확대 등으로 '전략·도전·협업' R&D 추진

- \* 전략적인 국가R&D투자 확대 : '19. 20.5조원 → '20. 24.2조원
- \* 고위험혁신R&D '한국형 DARPA'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'G-First 프로젝트' 도입
- \* 경쟁형R&D 등 개방형 혁신과 부처공동형 협업 R&D 등 확산

④ (혁신인재·혁신금융)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

- \* (혁신인재) 최고수준 SW인재를 양성하는 '42서울' 본격 운영(2월), AI대학원 확대('19. 5 → '20. 8, 누적)
- \* (혁신금융)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확대('19. 39.6조원 → '20. 45.6조원), 성장성·기술성 중심 여신심사 개선, 민간 모험자본 확대

⑤ (제도·인프라) 사회적 타협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기반을 강화하여 혁신이 심화·확산될 수 있는 토대 강화

- \*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'한걸음 모델' 구축,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, 공공조달의 '혁신성장 마중물' 역할 강화, 선제적 법령정비 등

□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'선도'하고, 이걸을 '조율'하며, 획기적으로 '지원'해 나가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

○ (선도) 혁신성장 5대 정책 TF\*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 발굴·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 구체화

\* 서비스산업, 바이오산업, 10대 규제개선, 데이터경제, 구조혁신

○ (조율) 혁신성장전략회의,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간 이견 조율과 부처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

○ (지원) 예산·세제·조달·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한 총력 지원

\* 혁신성장예산: '19. 10.6 → '20. 15.8조원(49%↑)

□ 혁신성장 전략과 주요과제 보고에 이어 「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」에 대한 현안도 보고

○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
-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,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·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지표상으로 감지

○ 정부는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“1+3 정책 대응방향” 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

① (방역 총력 지원) 총 208억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, 추가소요 발생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

② (경제 파급영향 최소화)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 및 세정·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 추진

③ (피해 우려분야 지원)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,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더해 현장소통 강화,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

④ (경기회복 모멘텀 사수) 금융시장·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,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 집중

## 【 산업통상자원부 】

- 산업통상자원부는 「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」을 보고·발표
- (소재·부품·장비 산업) 협력과 상생을 통해 “확실한 자립”을 강력히 추진하고,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약에도 박차
  - ① (수급안정) ①3대 품목\* 연내 공급안정 확보·9개 품목\*\* 연내 기술자립 + ②수급 차질시 긴급조정명령 + ③기업 유턴 활성화
    - \*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, 불화폴리이미드 \*\*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
    -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·부품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,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강화
  - ② (협력생태계) ①용인 소부장 특화전문 단지 지정\* + ②CNC 국산화 추진
    - \* 소재부품장비 특별법(4월 시행) →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추진
    - 상반기 중 국내 주요기업 참여 전문기업 설립을 통해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%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\*(CNC) 개발을 추진
      - \* (용도) 공작기계 핵심부품, 정밀 절삭이 가능토록 공작기계를 자동으로 컨트롤 (수입비중) 전체 수입 1.43억불中 일본이 93.7%(1.34억불) 차지('19)
  - ③ (글로벌 전략) ①「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(明匠)기업」 선정 + ②「소부장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」 수립('20.上)
- (신산업 창출) 지난해 민·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\*을 바탕으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“포스트 반도체”로 육성
  - \* 미래차('19.10), 시스템반도체('19.4), 바이오헬스('19.5), 로봇('19.3) 등
  - ④ (미래차) ①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 + ②국내 최초 자율셔틀 상업운행
    - 국내 친환경차 보급·생산을 대폭 확대\*하고, 친환경 차종 확대(수소트럭, 우편배달용 전기차 등)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 달성
      - \* 국내보급('19→'20) : (전기차) 9만대 → 16.3만대, (전기버스) 828대 → 1,478대
    -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.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(Level 4)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
  - ⑤ (시스템반도체) ①차세대 반도체 1조원 R&D 투자 + 협업 사업\* 가동 →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, ②반도체 수출 1천억불 회복
    - \*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 추진, 1,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운용(20.上)

-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 가동(20.2월, 화성), 세계 최고 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(20.上) 등을 통해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0% 달성

**⑥ (바이오) ①바이오생산 세계 2위 활용 생산허브 도약 → 수출 100억불 달성, ②병원 보유 의료기술 사업화\* 확대**

- \* 병원 보유 우수 바이오 특허(IP)의 기업이전사업화 지원 병원의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
- 송도·오송·대구 등 생산 인프라, 바이오 생산인력양성센터 설계 착수 (20.上, 年600명 규모) 등을 바탕으로 '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' 위상을 공고화

**⑦ (유망신산업) ①전량 수입 의존 가스터빈 국산화 → 향후 15조원 시장 진입, ②배터리리스시범사업 →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, ③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→ 산업데이터 강국 도약**

□ (수소경제) 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」 수립(19.1)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“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”로 도약

**⑧ (활용수출)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 보급,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**

- 수소차 1천대 수출로 2년 연속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 유지

**⑨ (유통) 수소 도매가격 25% 인하 → 수소충전소 운영비 절감**

\* 부생수소 생산유통 협업체계 구축 : ①생산(제철소 2천톤) → ②운송(물류기업) → ③공급(전문기업)

□ (수출플러스) 품목·시장·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

**⑩ (수출) ①품목·시장·주체 다각화 + ②역대 최대 지원\* → 수출플러스**

- \*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금융(257조원) 및 수출마케팅(5,112억원) 지원
- 주력산업 유망품목의 수출회복 견인, 바이오·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비중을 10%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 적극 추진
- \* 新산업 품목 수출비중(%) : ('18) 8.0 → ('19) 9.2 → ('20) 10% 이상
- 한-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하고,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불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

## 【 중소기업부 】

- 중소기업부는 「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, 스마트 대한민국」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 정책 추진 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·보고
- (핵심 정책 추진성과와 평가) '19년 벤처·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 하였으며,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 구축
  - \* (제2벤처붐) 벤처투자(4.3조원), 유니콘기업(11개), 신설법인(10.9만개) 달성 등 (중소기업) 스마트공장 1.2만개 보급, '브랜드K' 개발, 소부장 강소기업 선정(55개) 등 (소상공인) '가치샵시다 플랫폼·TV' 개국 등 온라인 지원 강화, 크리스마켓 행사 개최 등 (상생협력) '자살한기업' 발굴, 공공조달 멘토 프로그램 도입, 중기 복지플랫폼 출범 등

### 1]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, 스마트 대한민국

- (중소기업 : 스마트공장)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 및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 구현 등 고도화 추진
  - \* 스마트공장 보급(누적) : ('19) 12,660 → ('20) 17,800 → ('21) 23,800 → ('22) 30,000
  - 데이터센터·플랫폼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, 불량 원인분석·품질 최적화 등 수요자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
- (스타트업·벤처 : 스마트서비스) 첨단 ICT 솔루션 도입 등을 지원하여 빅데이터·AI를 활용한 사전진단, 수요예측 등의 서비스 발굴 도모
  - \* 프로세스 관리(RPA), 물류관리(WMS), 고객관리(CRM), AI·빅데이터 솔루션 등
  - D.N.A(데이터·네트워크·AI)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·육성하여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, 각종 금융 지원 강화
- (소상공인 : 스마트상점) 스마트오더, 스마트미러,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보급
  - 스마트상점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, 스마트 시범상점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 추진
- (소공인 : 스마트공방)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제고
  - 작업장의 공정개선, 재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 등 지원

## ② 디지털 경제의 중추, 혁신기업 육성

- (벤처 4대 강국 : K-유니콘 프로젝트) 민·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·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으로 도약을 촉진
  - 대형투자·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, D.N.A,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), 소재·부품·장비 등 선도산업 유망기업 집중지원
    - \* 시스템반도체 50, 생명공학 100, 미래차 100, 소부장강소기업 100, 소부장스타트업 100개
- (BRAND K)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엄선하여 브랜드 K로 선정하고 정상행사·한류연계이벤트 등 홍보기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지원
  - 한류이벤트 연계 전용관, 해외 온라인몰 등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고, 민관협업 마케팅을 통해 '국가대표 브랜드'로 육성
- (규제자유특구)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여타 국책사업과 연계 등 협력모델을 추진하고, 3차 신규지정 및 R&D·사업화 등 지원
  - 특구에 R&D·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성과 창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, 규제백과사전 구축 등을 통한 예비특구사업 발굴 추진
    - \* (세종) 실리콘밸리 기업인 '팬텀AI(국내에 없는 자율주행 4단계 기술 보유)'가 한국 지사를 3월 중 설립 하여 세종시(자율주행 특구)와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 (부산) 빗썸코리아 자회사 GCX Alliance가 부산(블록체인 특구)에 100억원 투자 검토 중

## ③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, 상생과 공존

- (대·중소기업)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·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 및 공정거래 위한 제도 개선
  - 홍보('가치샵시다 TV' 등)·인센티브\* 등을 통해 자상한기업을 육성하고, 정부지원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회환원 분위기를 조성
    - \* 동반성장평가 우대,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, 수출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
  -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
  -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,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, 특허청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 확립
- (소상공인)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, 오랜 경험·노하우를 가진 백년가게, 백년소공인 확대
  - 1인 미디어 플랫폼,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진출을 지원하고, '가치있는' 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확산
- (상권·전통시장)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화·콘텐츠·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 및 관광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 조성

## 【 금융위원회 】

- ◇ 금융위원회는 「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」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

< 그간 거둔 혁신금융 주요 성과 >

- ① 국내은행 동산담보 대출(잔액) : ('18년말) 0.8조원 → ('19년말) 1.6조원
- ②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(잔액) : ('16년말) 610조원 → ('19년말) 747조원
- ③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수(개) : ('16년) 82개 → ('19년) 108개

### ① 가계·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

-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('19.12.16,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) 하고,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개선\*

\*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출 도입 등

### ② 국가대표 1,000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

-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,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, 40조원 규모의 금융·비금융지원을 종합제공

### ③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

- 일괄담보제도\*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, 회수 지원기구\*\* 설립하여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

\* 기계·원자재·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

\*\* 담보물·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

### ④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

-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, 빅데이터를 활용\* 하여 기업의 경쟁력·신용도 평가를 지원

\* 기업다중분석DB: 산업전망, 기업 경쟁도 등 기업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정보 상거래신용지수(한국형 Paydex): 결제능력 등 기업의 상거래 신용정보를 지수화

### ⑤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

-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, 요건, 절차를 개선

## ⑥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

- (창업) 특화된 창업지원공간(마포 Front1)에서 벤처투자, 컨설팅,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
- (성장)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,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
- (성숙)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·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

## ⑦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을 강화

- 자동차, 조선,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,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.2조원\*을 공급
- \* 중소·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(4.5조원),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(3.0조원) 등

## ⑧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

-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,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

## ⑨ 데이터 新산업\* 도입, 오픈뱅킹\*\* 기능·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·복합 활성화

\* 예 :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분석·활용해주는 마이데이터업

\*\* 하나의 앱(App)만으로 여러 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

## ⑩ 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

- 실패한 사람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,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\*

\*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



## 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efpr@korea.kr](mailto:moefpr@korea.kr)

